

『 한국 예향(禮香)의 상징, 전주한옥마을 』

지리교육과 3학년 최보배

☞ 답사 포인트

- 지자체가 주도한 관광지의 계획적 형성과 그 실태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 서울의 북촌한옥마을과 경관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

1. 전주한옥마을 개관

전주시가 1999년부터 예향의 상징으로 애정을 가지고 키워온 전주한옥마을은 이제 명실상부한 전북의 상징이며, 최근 10년 안에 급부상한 곳이지만 전북의



〈 전주한옥마을 지붕들의 기와농선 〉

출처: 전북일보

문화콘텐츠로 당당히 자리 잡았다. 경기전, 객사, 양사재, 오목대, 이목대, 전동성당, 전주사고, 조경묘, 최씨종각 은행나무, 풍납문, 하마비, 학인당, 한벽루, 향교 등 문화유적들과 강암서예관,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 동락원, 목우헌, 설예원, 승광재, 아세헌, 우석대한방문화센터, 이지원,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주동학혁명기념관, 전주목판서화체험관, 전주전통문화센터,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지담, 최명희문학관, 한지원 등 문화시설들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이다. 전주한옥마을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전주와 전북을 상징하고, 이 땅을 떠올리게 하는 키워드들도 전주한옥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7백여 채의 한옥을 잇댄 담과 골목, 문(門)과 창(窓), 나무와 숲, 장독과 기와는 전주한옥마을의 또 다른 구성요소이다. 전주한옥마을은 동네 소문이 스며있는 토담과 같은 것들이 모여 그만의 서정을 만들어낸다. 전주한옥마을이 서울의 북촌한옥마을이나 남산골한옥마을 등과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韓)스타일 특구' 지정¹⁾을 추진하고, '슬로시티¹⁾(Slow City)' 가입에

1) 슬로시티는 1999년 이탈리아에서 출범한 국제슬로시티연맹을 통해 느리게 사는 삶을 지향하는 국제적 조직으로, 전통문화, 지역민 중심, 생태주의 등 느낌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커뮤니티.

도전하는 의미도 이 연장선에 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교동, 풍남동 일원의 도시한옥은 1910년대부터 산업화 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주거문화 발달과정의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각계전문가 및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 도시 주거문화의 역사성,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도시 한옥군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계획적인 보전, 정비, 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 대구, 경주의 도시한옥군은 한옥보존지구 및 미관지구 해제 이후 진행된 무계획적인 개발로 인하여 도시한옥군의 전체적인 형상이 훼손되고 개별 한옥의 원형이 상실된 상태이나 전주시의 도시한옥군은 지구형상, 건물형태 및 구조, 골목길 등이 양호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2. 전주한옥마을의 유래

을사조약 이후 대거 전주에 들어오게 된 일본인들이 처음 거주하게 된 곳은 서문 밖이었다. 서문 밖은 주로 천민이나 상인들의 거주 지역으로 당시 성안과 성 밖은 엄연한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 성곽은 계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존재했던 것이다. 양곡수송을 위해 전군가도²⁾(全群街道)가 개설(1907년)되면서 성곽의 서반부가 강제 철거 되었고, 1911년 말 성곽 동반부가 남문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됨으로써 전주부성의 자취는 사라졌다. 이는 일본인들에게 성안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실제로 서문 근처에서 행상을 하던 일본인들이 다가동과 중앙동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후 1934년까지 3차에 걸친 시구개정(市區改正)에 의하여 전주의 거리가 격자화되고 상권이 형성되면서, 서문 일대에서만 번성하던 일본 상인들이 전주 최대의 상권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1945년까지 지속되었다.

1930년을 전후로 일본인들의 세력 확장에 대한 반발로 한국인들은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촌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일본인 주택에 대한 대립의식과 민족적 자긍심의 발로였다. 1930년대에 형성된 교동, 풍남동의 한옥군은 일본식과 대조되고 화산동의 양풍(洋風) 선교사촌과 학교, 교회당³⁾ 등과 어울려 기묘한 도시색을 연출하게 되었다. 오목대에서 바라보면 팔작지붕의 휘영청 늘어진 곡선의 용마루가 즐비한 명물이 바로 교동, 풍남동의 한옥마을인 것이다.

2) 전주와 군산을 잇는 국도26번은 일제(日帝)가 효율적인 한국지배를 하기 위하여 1908년 741km에 달하는 신작로를 전국에 만들었다. 이때 만들어진 전군도로는 국내 최초의 시멘트 도로로 곡창지대와 항구도시를 연결시켜 한국의 곡물을 일본으로 쉽게 실어 나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3) 전주한옥마을 입구에 '전동성당'이라는 고딕양식으로 구한말에 건설된 건물이 잔존해있다.

3. 전주한옥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한옥마을 내의 전주전통문화센터는 볼거리, 먹을거리, 놀 거리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소리를 사랑하고 타자를 긍정하던 전주의 마음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예술과 놀이, 전통의 맛과 멋, 의례와 체험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한옥 생활체험관은 조선 시대 양반집을 연상케 하는 전통한옥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서, 숙박체험 및 전통문화체험, 공연, 이벤트 등을 다양하게 즐기고 느끼며 선조의 삶과 지혜를 자연스레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전주 한옥보존지구와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있는 한옥생활체험관은 한옥의 여가를 고스란히 살필 수 있는 곳이다. 안채(단영원)와 사랑채(세화관)로 나누어진 이곳은 조선시대 양반생활사를 그대로 엿볼 수 있도록 전통가옥을 재현했다. 한옥 마을 내부에는 술 박물관이 있어 조선시대와 그 이전의 주조법을 알아 볼 수 있으며, 다원에서 차를 마시는 것 또한 즐거움이다. 마을 내에서 공예기념품 구입도 가능하다. 한방문화와 한지원도 있어 전주의 명물인 한지에 대한 학습도 가능하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보고, 음악을 배워보는 체험학습이 많이 개설되어 최근 학교 수학여행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사진작가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마을 내의 건물과 토담, 장독대와 골목길, 지붕, 문과 창 등 여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전통의 미’를 촬영하기 위해 하루에도 많은 사진작가들이 이 카메라를 들고 이곳을 찾는다. 이와 같이 사진 촬영지로도 매우 선호도가 높은 전주 한옥마을이다.



〈 체험학습의 장, 전주한옥마을 〉

출처: 한국경제

단순한 경승지를 찾아서 보는 관광의 형태를 탈피한 체험관광과 자유도가 높은 관광형태는 포스트모던관광의 정석이다. 전주한옥마을은 단지 보고 즐기는 형태의 관광이 아닌 자신이 직접 그 관광 명승지의 일원이 되어 봄으로서 교육효과를 누릴 수 있는 탈현대적 관광의 대표적 주자이다. 음악, 식문화, 놀이문화, 가옥양식과 생활문화 등 어느 하나 빠지는 요소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전주한옥마을은 특유의 분위기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교육과 체험 장소, 성인들의 문화 향유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4. 전주 한옥마을의 긍정적 효과

※ 참고 넘어가기		
구분	현대적 관광	탈현대적 관광
배경	현대성(modernity)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	탈현대성(post-modernity)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관광 유형	대중관광 (mass tourism)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 포스트 관광(post tourism)
관광 자원	비실재(unreal) 관광자원	실재(real), 초실재(hyperreal) 관광자원
특징	포디즘(fordism) 생산자 중심/관광 상품의 소품종 대량화 단체(mass) 팩키지(packaged) 책임 없는(irresponsible) 행동 수동적 / 위락적	포스트 포디즘(post-fordism) 소비자 중심 / 관광 상품의 다품종 소량화 개인(individual), 신중간계급(new middle class) 비팩키지, 유연적(unpackaged, flexible) 책임 있는(responsible) 행동 능동적 / 교육적·가치 지향적·자기개발
공간적 특징	특별한 볼거리 장소(extraordinary site) 3S(Sun, Sand, Sea): 해안 경승지 관광지의 분화(differentiation) 관광지의 공간적 집중	일상적 볼거리 장소(general interest site) 경제, 문화, 스포츠, 교육활동 장소 관광지의 탈분화(de-differentiation) 관광지의 공간적 확대

〈 현대적 관광과 탈현대적 관광 〉

출처: 포스트모던 관광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2007, 오정준

기반시설과 공공 및 민간 한옥건물을 정비하여 전주 한옥마을이 전주시 문화 축제의 장이 됨에 따라(소리문화축제, 종이문화축제, 풍납제, 약령시) 관광객이 급증하였다. 공공 문화시설 방문객 수를 보면 2002년에는 내국인 약 20만 명, 외국인 약 2,700명 이었으나 2005년에는 내국인 약 77만 명, 외국인 약 37,000 명으로 3년 동안 3.89배가 증가하였다. 외국인 관광객은 약 13.61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4년과 2005년 사이 6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광객 방문 주이는 다음 표와 같다.

연도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 체험관	술박물관	합계
2002	86,688 (1,733)	74,804 (561)	33,200 (256)	3,586 (184)	198,278 (2,734)
2003	283,345 (5,950)	259,158 (186)	54,766 (92)	7,456 (66)	604,725 (6,294)
2004	238,418 (5,483)	204,709 (149)	72,277 (95)	53,562 (395)	568,766 (6,122)
2005	387,839 (12,635)	288,444 (12,980)	62,174 (10,466)	33,009 (1,129)	771,466 (37,210)

〈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 추이(2002~2005): 괄호 안은 외국인 〉

출처: 전주시 문화관광과 전통한옥마을 방문객 통계(2006)

전주시의 계획적인 한옥마을 지원으로 관광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는 관광객의 유치로 이어져 전주시 재정이나 지역경제, 나아가 국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도시 이미지 조성 자체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옥마을은 전주시를 ‘예향과 고풍스러운 한국의 미를 갖춘 도시’라는 이미지를 군한다. 전국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한옥마을을 대표 관광지로 양성하려는 전주시의 대대적인 계획은 착실하게 결실을 맺었으며, 내국인들의 인식에 전주 하면 한옥마을이라 할 정도로 전주의 상징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셈이다. 시는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을 관광하고 머무르면서 500억 원 이상의 관광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 2009년 전통문화구역 정비 등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변 문화시설과 음식점 등에 3,000여 명에 달하는 고용창출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에는 타지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온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한옥마을은 주민들의 소득도 높아지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았다. 전주 한옥마을이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은 만큼 시는 장기적인 수익 창출에 나설 예정이고 한옥마을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플랜을 수립했으므로 관광수익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옥마을은 도시경관에도 영향을 준다. 도시 속 가장 한국적인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체성이나 지역정체성에도 큰 역할을 한다. 이는 진입을 장려하고 진출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보탬이 된다. 그러한 도시 이미지는 거주민 이외의 사람, 관광객들의 재방문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⁴⁾되었다. (Geva and goldman, 1990)

4) 2004, 김갑도, “傳統韓屋마을이 都市이미지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全州 韓屋마을을 中心으로”

5. 전주 한옥마을의 뒤틀린 경관에 대한 의문

전주 한옥마을에 들어서면, 전통 한옥이 즐비하게 서있고 조용한 곳에 사람들이 고즈넉하게 생활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던 것이 오산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일부 훼손되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거주기능에 충실하고 있는 서울 가회동 북촌한옥마을의 조용한 분위기와는 달리 전주시의 대대적인 홍보와 공사로 거주기능이 아닌 ‘보여주기’ 관광지로 조성된 터라 이미 전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한옥마을에는 하루에도 수백 명의 관광객이 오간다. 그런 관광객들을 위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한옥마을의 본질인 전통한옥과 그만의 분위기가 거대자본과 개발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 무엇을, 누구를 위한 공사? 〉

곳곳에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물론이거니와, 한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4~5층 높이의 콘크리트 건물들이 한옥 사이사이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 한옥 마을 중심을 흐르는 실개천은 공사로 반듯하게 만들어진 인위적인 물길이다. 체험과 소비를 위한 ‘봉’인 외국인 관광객에만 신경을 쓴 탓인지 한국인에게는 크게 어필하지 못하는 값비싼 공예품과 이미 예스러움을 잃고 엉망으로 페인트칠되고 반듯

한 나무로 억지로 지어진 한옥들은 위화감마저 든다.

전주시의 졸속행정으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한옥마을 내에 들어선 ‘양복에 갓을 쓴’ 경관은 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경주시의 경우 한옥을 보존하고 경관을 만들기 위하여 주변 지역의 높이 제한을 설정하고 있으나, 전주한옥마을 근처에는 그런 것이 없어 양식 건물이 들어차 있다. 알 수 없을 여러 가지 공사 또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나무향이 아닌 콘크리트 냄새가 가득 찬 한옥마을은 외국인에게 억지감흥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국인들의 고개는 가우뚱해진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음식점들은 전주의 이름을 쓰면서 기존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전주시의 한옥보조금은 사람을 쫓아내고 시설만 양성하는 왜곡된 시스템이다. 진정한 주민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상인들이 보조금을 받아 음식점이나 찻집 등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있는 꼴이라 성토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옥마을 내부의 통행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새로 지어지는 한옥들의 규모가 기존 필지보다 서너 배나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필지들의 통합으로 대지 깊숙이까지 뻗어져 있던 골목들이 없어졌다. 더욱이 이벤트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 도로의 확장은 마을의 구조를 바꾸어 놓아 완전히 다른

서해안 일대

성질을 갖게 한다. 여기에서 도시성의 변화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은 상업화에 따른 거주민의 삶의 변화일 것이다.

도시공간의 원형은 건물이나 길의 크기, 높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료와 색채 등의 요소들이 서로 어울려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도시의 원형을 바꾸기는 쉽지만 한 번 바뀐 원형은 다시 제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 전주 한옥 마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도시 설계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속에 담겨져야 할 삶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장소나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는지 살펴보고 소자본으로 촘촘히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임용민, 2009)

6. 한옥마을을 해치는 주범은 보존 정책?

상기 4번의 내용과 같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행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보존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자.

서울특별시	전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위원회 설치 · 한옥의 매수 · 외관, 내부 수리 수선 경우에만 6천만 원 안에서 재정지원 · 한옥 보존을 위한 일에는 위원회 심사 후 무이자 융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위원회 설치 · 한옥 매수청구권 · 한옥 시설 정비권 시에서 보유 · 한옥 수리, 수선, 증축, 개축, 신축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재정 지원 · 문화시설 운영 시 최대 2천만 원 지원

〈 서울특별시와 전주시의 한옥마을 보존정책 비교 〉

출처: 한옥보존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연구, 2007, 김연옥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조항들이 정확한 기준 없이 애매하게 진술되어 있으며 모든 심사 건을 시청 산하 ‘한옥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보존하고 키워나간다는 명목 하에 10년간 수십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으며 그 돈들은 자본가들의 착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한옥의 경우 같은 번지에서 개인이 증축 명목으로 5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뒤 문화단체가 문화시설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또 받아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소한의 지원과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와 달리 전주시는 모든 권한을 전주시 에 귀속시켰다. 서울의 경우 한옥의 수리에 한정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주시는 한옥의 개조와 증축, 신축 등에도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나눠주고 있다. 이리하여 과하게 비대해져 버린 한옥들, 모양을 알 수 없는 건물들로 점차 알 수



〈 테마 관광로 조성 이후 마을의 모습 〉

출처: 내셔널 트러스트

없게 변했다. 정확한 기준 없이 제정된 보조금정책은 한옥마을을 변질시킨 주범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항의와 걱정에도 전주시는 ‘조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상관 없다’는 모르쇠 입장을 굳히고 있다. 부정 수령이나 중복 수령에 대해서도 딱히 조례는 없다. 단지 ‘위원회의 심사 하에 수령액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도의 조항뿐이다. 이를 악용한 한옥마을 세입자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감독 할 항목이 전혀 없다. ‘문화시설’의 기준도 없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이 나가고 나면 돈을 타간 사람들이 편의점을 내든,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차리든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서울과 같은 과소한 지원정책 또한 주민들의 반발 등을 야기할 수 있으나 전주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주인을 우선 배려해야 할 한옥마을 보존정책은 세입자들의 부정 보조금 수령으로 얼룩져 있다. 한옥마을을 세계의 명소로 키울 욕심만으로 만든 정책은 결국 전주한옥마을을 위태롭게 만든 셈이다.

☞ 생각해 보기

- 전주한옥마을이 부패한 상업화로 변질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참고 문헌》

- 김연옥 / 2008 / 한옥보존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연구 : 한옥마을 거주자를 중심으로 / 국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수연 / 2007 / 전통주거문화의 보존 · 계승을 위한 한옥마을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 전주한옥마을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갑도 / 2004 / 전통한옥마을이 도시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참고 사이트》

- 내셔널 트러스트 자료보급센터 <http://cafe.naver.com/ntdocu>
- 전주한옥마을 홈페이지 <http://hanok.jeonju.go.kr>
- 신 전북일보 <http://www.jjan.kr>
- 매일경제 <http://www.mk.co.kr>